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원효스님 '唯心'

스님의 법명은 원효(元曉), 법호는 화정(和靜), 속성은 설씨(薛氏), 초명은 서당(書堂)이다. 신라 진평왕 39년(617)에 안양군 불지촌(佛地村) : 지금의 중산군 자인면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10세에 출가하였는데 남달리 총명하여 출가 때부터 스승을 따라 경전을 배웠다. 성인이 되어서는 불법의 오의(奧義)를 깨달음에 있어서는 특정한 스승에 의존하지 않았다. 스님은 경학뿐만 아니라 유학(儒學)에 있어서도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었다.

고구려 고승으로서 백제 땅 전주 고대산에 주석하고 계신 보덕 화상(僧德和尙)의 강하(講下)에서 〈열반경〉, 〈유마경〉 등을 수학하였다. 영취산 혁목암(靈鷲山赫木庵) : 지금의 통도사 산내 암자의 낭지(朗智) 화상에게서도 사사하였으며, 당대 최고의 신승(神僧)이신 허공 화상(惠空和尙)에게서도 사사하였다.

34세에 의상과 함께, 당나라 현장 법

마음이 생기면 만물의 갖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멀하면 무덤, 해골물이 돌아야함을 깨달았구나.

활연대오를 한 원효스님은 발길을 되돌려 신라로 돌아왔다. 그리고 미친 사람이나 또는 거지행세를 하면서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민중포교에 들어갔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화엄경〉을 주석하였다.

스님은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 줄 건가, 하늘 받칠 기둥을 깎으려 하네. 誰許沒柯斧爲斫天柱(수허물가부위작지천주)"라는 노래를 불렀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만 무열왕이 그 노래를 듣고 뜻을 알았다. 귀부인을 얻어 훌륭한 인재를 낳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알아차린 무열왕은 스님을 요석궁으로 들게 하였다. 이후 선사는 설총(薛聰)을 낳은 후 실계(失戒) : 스스로 계율을 파하였다 합하였다 하여 속북(俗

"누가 자루없는 도끼 빌려줄 건가 하늘 받칠 기둥을 깎으려 하네"

사와 규기 화상에게 유학학을 배우려고 요동까지 갔지만 그곳 순라군에게 협자로 몰려 여러 날 옥에 갇혀 있다가 겨우 풀려나 신라로 되돌아왔다.

10년 후 45세 때에 두 번째로 의상과 함께 이번에는 바다로 해서 입당하기 위해 백제국 항구로 가는 도중 비를 만나 산속에서 길을 잃고 해마다 겨우 토굴을 찾아서 하루 밤을 지내게 되었다. 갑종이 나 토굴속에서 고여 있는 물을 떠 마셨는데 물맛이 매우 달고 시원하였다.

그러나 아침에 깨어보니 토굴이 아니고 오래된 공동 무덤이었으며 물을 떠마시던 그곳은 바로 해골이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하루밤을 더 지내게 되었는데 이에 귀신의 작란(作亂)에서 활연대오(豁然大悟)하였다.

유심(唯心) : 모든 사물의 법칙은 오직 한마음에서 일어난다

知心生故種法生(지심생고종법생)
心滅諸障不二(심멸고촉부불이)

朋)으로 같이입고 스스로 소성 거사(小性居士)라 하면서 광대들이 무능(無能)하는 큰 박을 본 따 무애호(無礙瓢) : 나무를 깎아 만든 바가지)를 만들어 천촌만락(千村萬落)을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부처님의 이름을 알고 염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스님의 일생은 화정(和靜)의 교법(教法)에 의하여 자리(自利)를 구하고 대중교화를 통하여 이타(利他)를 행함으로써 상구보리 화화(和化)로 일관하였다.

스님은 인간의 청정한 마음이 현실에 혼숙되어 불각심(不覺心)이 일어난 무명업상(無明業相)을 미오한 현실생활 속(俗)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수행함에 의하여 완성된 인격(眞)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전생을 바쳤다.

신론왕 6년(686)에 세수 70세 법랍 60세로 입적하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자, 합장하시고 지장보살 열 번 부르고 법회를 끝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72세의 세수가 믿기지 않을 만큼 찌렁 찌렁 울리는 목소리로 법회를 마친 신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은 요즘도 지장재일 법회만큼은 직접 법문을 하신다. 1월 30일 경국사 지장재일 법회 날에도 스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법단에 오셨다.

이날 법문은 최근 다녀오신 중국 성지순례에 대한 것으로 시작했다. 1월 21일-27일 중국 구화산과 홍산 일대를 둘러보고 오신 스님은 시쳇말로 따끈따끈한 여행담을 불자들에게 들려주었다.

킬링필드서 반야심경 독송

"... 구화산에는 절이 70여개에 암자가 수백 개라는데 이 가운데 김교각 스님과 얽히지 않은 곳이 없다 합니다. 그곳에 가보니 김교각 스님이 다 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심이 솟아나고 너무 좋았어요... 내가 입만 해도 본 것 다 말 못하겠습니. 벌써 법문 시간 다 갔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닿으면 중국뿐 아니라 국내의 곳곳을 다니며 큰스님들이 공부하신 자취를 더듬어 보세요. 제 법문 듣는 것보다 훨씬 큰 공부가 될 겁니다."

매섭던 겨울 추위로 잠시 쉬어가는 듯 서울 정릉 3동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경국사에 불 기운이 찾아들었다. 돌계단 위에는 살얼음이 자리를 잡고 도랑 곳곳에 아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따뜻한 햇살에 기세를 잃어가고 있었다. 스님과 불 기운을 느끼며 도량을 거닐었다.

스님은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도 다녀오셨다. 영화 '킬링필드'의



◀신환스님은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참선과 108배 등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뭘 얻으려 하지 말고 참회를



가까이서 뵈 큰스님

인 환 스 님 (동국대 명예교수)

마음 어떻게 쓰냐 따라 삶의 향방 순식간에 바뀌어

무대가 되었던 곳에도 가보았는데, 그곳에서 사람의 해골로 쌓은 탑을 보고 그 앞에 서서 〈반야심경〉을 독송하시며 원혼을 위무하셨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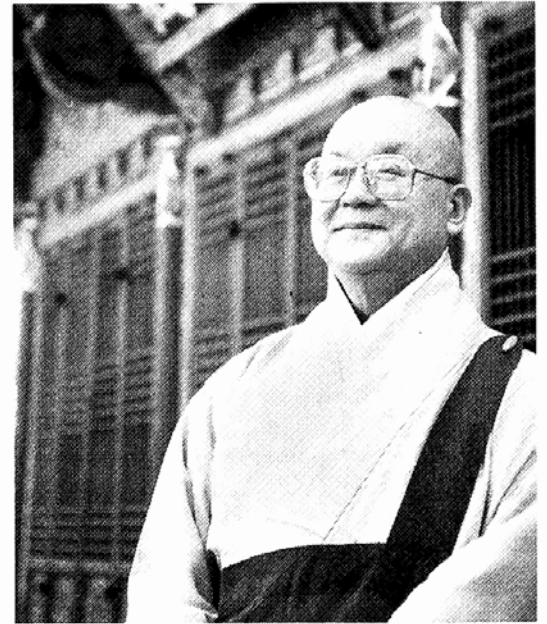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본래 인간은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우리 본심은 선악 이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본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향방이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음 하나 잘 쓰면 성인이 되고, 조금만 비둘게 쓰면 악인이 될 수가 있는 그 이치 말입니다. 캄보디아에 가

서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새삼 보고 느꼈습니다. 죽은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연민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반야심경〉 독송을 하였던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스님은 다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듯 눈을 지긋이 감으셨다. "나무 이미 타볼 관세음보살!..."

"스님, 건강하셔야 그렇게 먼 외국으로 성지순례도 다녀올 수 있을 텐데 특별한 건강비법이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투 진지해진 분위기를 흐트러며 여쭙 보았다. 뜻밖의 질문에 스님은 껌껌 웃으



◀20년 가까이 주석해 온 서울 정릉 경국사 앞마당에 선 인환스님.

시며 이렇게 답하신다.

새벽은 '중노릇 하는 시간'

"마음이 젊으면 육체도 따라가는 법이요. 무엇이든지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특별한 비법이 뭐 있겠소. 자가용 안타는 대신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일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순간순간 닦치는 모든 일을 대하고, 그러면 저질로 건강해지는 거지. 요즘은 한창 젊었을 때보다 조금 덜 먹는 게 예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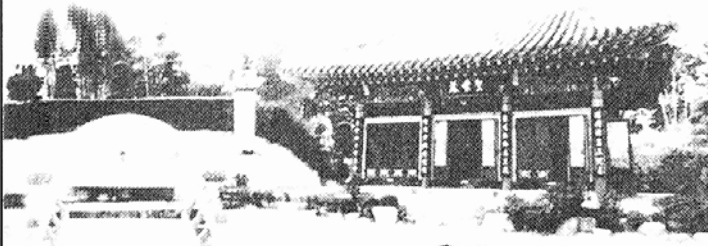
스님은 요즘도 매일 새벽 4시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다. 부산 선암사에서 출가한 후 50년 넘게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경전 독송과 참선, 108배 참회 수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를 "내 중노릇 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유학시절에는 공부하느라,

정월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효행을 실천한 사찰로서 성모님 묘소와 더불어 조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 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명의 능체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 도량에 왕림 하셔서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IC에서 군산방면 - 대야점포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 성모암 서해안 고속도로 동문IC. 서김제IC에서 5분거리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종무소 ☎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388번지 불거촌

성모암 대중일통

참 선 교육

참선은 아무나 하나 - 1월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지를 갖춘 후에 대심심, 대보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회두일명으로 확실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권** 참선의 목적(참선의 정의, 참선의 역사, 종류(법부선, 의도선, 소승선, 대승선, 좌상승선), 사계(사계의 종류, 참선 전후의 운동, 오묘하는 법, 참선 시 세부적인 요령), 참선과음악
- 2권** 악두의 중요성, 악두의 정의, 악두 탐구법, 악두의 총론과 뚜뽀, 악두의 단계, 참선과 법로, 선법론 의식, 범거랑 법도, 사빈주, 동념즉지 정념즉지, 임계의 법로, 선문답하는 법, 선사 법문, 조사경역, 재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 아니라, 평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 3권** 선사 백문백답

기준에 나와 있는 禪 서적과 완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1, 2, 3권이 3월에 출판됩니다. 먼저 인쇄해두고 판매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교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에게만 보급하기 위하여 300질 한정판으로 제작하오니 구입에 뜻이 있는 분은 미리 송금한 후 전화주시면 3월에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대량 제작 후 불교서적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격 1질(3권) 3만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 佛)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736-4339

※ 56기 참선교육 : 2002년 3월 12일(화) ~ 4월 9일(화) - 5회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출세를 하세요!

한국근본불교조계종승려및포교사2기학인모집

I. 승려과정

모집과정 - 20명 (남 10명, 여 10명) 1년 수료과정
자 격 - 나이 제한 없음, 중졸이상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여권용)
모집기간 - 2002년 3월 30일까지

II. 포교사과정

모집과정 - 20명 (남 10명, 여 10명) 3개월, 6개월 과정
자 격 - 연령 학력 불문, 포교원, 철학원 환영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자필이력서, 사진 5매(여권용)
모집기간 - 2002년 3월 30일까지

- 교육방법 : 우리말 경전 및 의식으로 단기간 내에 승려 및 포교사 자격 취득
- 특 전 : 1. 본 대학 수료 후 종단내 사찰에서 100% 수용
2. 입학금 수업료 일체 무료. 단, 의식비 월 10만원
- 문의전화 : 033)371-7751~3 팩스 : 033)671-7754

※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종립근본불교승가대학